

명례방 모임

(구역 모임)

2026.01.



브루클린교구 베이사이드 한인천주교회

1. 시작기도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롭게 되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 + 기도합시다.
- ◎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2. 말씀 나눔

1) 말씀 듣기 : 코린 1,10-13.17(연중 제3주일 2독서)

2) 침묵 후 다시 한번 말씀 봉독

3) 말씀 나눔

<묵상 더하기>

- 나는 본당 공동체에서 어떤 구성원입니까?
- 나는 얼마나 본당 공동체의 일에 관심이 있는 구성원입니까?
- 본당 공동체의 일에 망설이거나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자유 기도

3. 본당 공지사항 및 구역별 공지사항

- 2/18(수)는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본 성전에서 20:30에 재의 수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아울러 이날은 의무 단식(1식)과 금육의 날입니다. 은총의 사순시

기를 차분히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2/21(토)-22(주일)에는 각각 다른 주제로 이틀간 사순 피정(허진혁 바오로 신부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마침기도(본당 설립 30주년 기도문)

-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무수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 이제 저희는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며
 당신의 뜻에 맞갖은 공동체로 거듭나고자 하오니
 삶의 무게와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저희를 굽어보소서.
- 주님, 저희가 이 은총의 시기에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어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일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과
 주님을 알고도 떠나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본당의 주보 성인이신 성 로버트 벨라민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5. 사목단상

“한인 공동체 30주년을 기다리며”

예로부터 30살을 '이립'(而立)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논어 편에서 서른에 자기 자신의 뜻이 확고하게 섰다는 말에서부터 유래했습니다.

이립. 2027년이면 이제 저희 한인 공동체는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본다면, '이립'이라는 말의 뜻처럼, 우리 본당 공동체 모두가 하느님 앞에서 뜻을 확고하게 가지며 서있는지 물음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더 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인지를 고민해본다면, 분명히 우리 공동체가 언제나 찾아야 하고 필요한 것은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목을 하다보면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합니다. 그중 대다수의 문제를 차지하는 것은 공동체적 관점이 아닌 스스로의 생각에 국한되어 전체를 쉽게 판단해버리는 집단화 현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신자 공동체를 초기 교회 공동체의 마음으로 돌리는 방법 중의 최고의 방법은 하나의 지향으로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특별히 함께하는 행사에 참여하며 모두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에 한인 공동체 설립 30주년 준비위원회에서는 한인 본당 공동체를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공동체 기도를 우선으로 하면서, 신자분들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전에 걸어온 본당의 30년의 과거를 되새겨봄과 동시에, 앞으로 본당 미래의 30년을 내다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공동체 모든 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